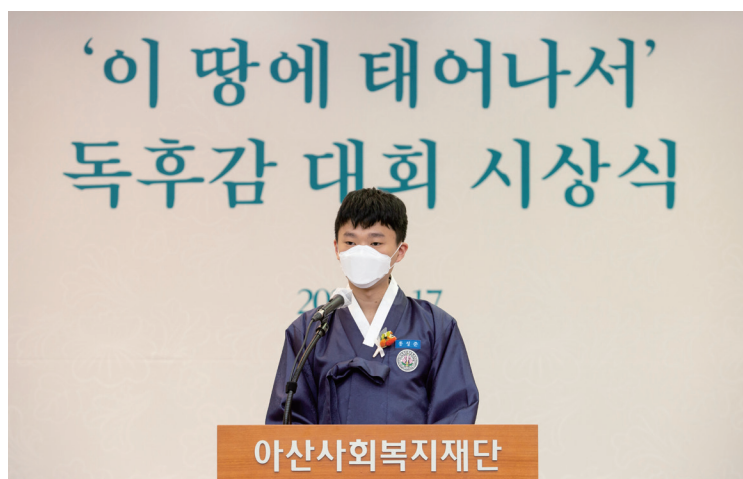


지도자의 품격



수상소감을 전하는 홍성준 학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은 2021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에 나와 있는 서울대가 지향하는 인재의 모습 중 하나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들이 추구하는 학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다가 위의 문구를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리더”, “리더십”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이런 요소를 덕목 중 하나라고 여긴다. 나는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반장, 학생회장, 교장 선생님 등 주변에 보이는 여러 조직의 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관찰하고 고민해보았다. 스스로도 2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오케스트라 파트장, 동아리 차장, 프로젝트팀장과 같은 작은 모임의 장을 경험해보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하다 보니 부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내가 대략 내린 결론은 리더는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리더의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고 진정한 리더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었다. 이 글을 통해 리더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요소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 것들을 서술할 것이다.

책을 읽던 중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이라는 문장을 읽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도껏 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정주영 회장님이 막노동과 사소한 일들을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차츰차츰 더 나은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 읽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선이 개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이때 리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주영 회장님도 이에 대해 ‘경영자가 모든 일에 술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만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말이 씨도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한다. 좋은 지도자는 시원한 곳에 앉아서 수행원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로 뛰어야 하는 위치이다. 이 부분을 읽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었던 점은 정주영 회장은 이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빈대가 사람에게 가기 위해 벽을 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빈대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주변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는 강원도 산골에 있다. 특정 시기만 되면 일명 ‘팅커벨’이라고 부르는 엄지손가락보다도 큰 나방을 비롯한 각종 곤충이 기숙사에 출몰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집게벌레가 가장 대단한 것 같다. 지금 내 방이 10층임에도 집게벌레들이 기숙사 벽을 기어 올라와 어느새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제는 이런 집게벌레들을 보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있는 집단의 리더의 경우 올바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정주영 회장은 한 민족에 대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이라도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과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술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여러 일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사회에 대한 바른 관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언론은 으레 기업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조명한다. 나도 그런 시선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정주영 회장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다. 사업에서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의 진출과 신용을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외국 기업의 하청업자가 되지 않고자 기술 자국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달한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인상적이었던 점은 정주영 회장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다. 회장은 기업가는 이익을 남겨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 해야지 국가에, 사회에, 거저 돈을 퍼주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한다. 이전에는 그저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기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불필요한 지출 없이 기업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나라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일이며 기업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주영 회장이 삶을 정말 열심히 사시며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올림픽 유치, 금강산 개발, 정치와 같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 후반부에 나

온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참 인상적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가지고 담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항상 향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자사경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기어코 자신이 마음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전심으로 이루어내며 현재를 충실히 살 줄 아는 사람은 우선 행복한 사람이라고 책에 나온다. 참된 리더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산 정주영 회장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일을 계속 열정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유념하고 매일매일 진보하고 근검절약하며 뜻과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면 나도 언젠가는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요즘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입시는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본 기말고사의 성적은 절망적이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며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결과가 그에 상응하지 않아 스스로 실망하였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중 성공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큰 기대를 하거나 목적을 갖고 읽지는 않았으나 다 읽은 후에 다시 도전할 힘과 삶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 만든 한계를 부수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끔 고민하던 리더의 자질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나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은 주어진 상황을 지주 탓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유년 시절에 비하면 지금 나와 대부분 청소년의 상황은 훨씬 낫다. 이 책을 읽고 시간이라는 자본금을 더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여 주어진 인생 동안 유의미한 성취를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더욱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사명감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겠다. 🌟